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MARCH 2022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19



플로리다 골프여행을 마치고

2020년 1월 24일부터 한 주간 계동회 회원 주선으로 33명(뉴욕 출발 23, 현지 합류 동문 10)이 Florida Palm Beach 지역에서 함께 첫 원정 골프여행을 시작하였다. 지난 해는 Pandemic으로 무산되었고,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상황이 여의치는 못하였지만, PCR 검사 및 Rapid test 등 방역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Florida 동창회 최희덕(사대68) 회장과 조동건(공대69) 동문 주관으로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의 축소된 규모의 골프 일정을 무사히 마쳤다.

돌아올 무렵, 동북부 지역에 금요일 저녁부터 24시간 winter storm warning이 발효되고 뉴욕 일원 공항이 폐쇄되는 바람에 부득이 하루 더 머물고 돌아오는 불편을 겪었다. 다행히도 Henry Morrison Flagler Museum을 여유있게 방문할 수 있었다. 뉴욕에서 내려간 골든클럽 회원 12명과 현지 동문 12명이 낮에는 골프를 같이 치고 저녁에는 식당에 모여 반주를 곁들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식사를 함께하며 여러 날을 지내다 보니 학창시절 수학여행 기분이 들기도 하였다.

월요일 첫 날은 골프를 마치고 최희덕 회장 댁에서 열린 'Welcome Party'에 30여 명의 동문이 자리를 함께한 흥겨운 분위기 속에 뉴욕에서 준비해간 감사패와 찬조금 전달도 있었다. 5일째 마지막 날은 골프를 마치고 김종권(의대63) 선배님 초대로 Mainland China Bistro에서 푸짐하게 Peking duck 요리를 즐기고 2023년 겨울에 다시 만나기로 다짐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내년에는 Covid걱정없이 더 많은 회원 가족이 snowbirds여행에 참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체류기간 내내 신경쓰고 배려해 준 Florida 동문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뉴욕, Florida 지역 모든 동문께 건강과 즐거움이 가득한 새 봄이 다가오기 바라며 이번 전지훈련이 4월 골프대회 때 좋은 성과를 발휘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뉴욕 골든클럽 참가 회원:

권정덕/홍선경 김광현 배상규 성기로 손경택 조달훈/조승자 천병수/천종화 홍종만/홍예경

홍종만 (공대64, 골든클럽 회장)

신년교례회

지난 2년간 Pandemic 으로 신년교례회 행사가 무산되었으나, 차츰 규제와 격리 생활에서 벗어나면서, 예정대로 3월 26일(토) Atrium of Tenafly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합니다.

신년교례회 기념품으로 서울에서 건강식품(오미자청 셀)을 특별 주문하였으며, 음대 후배들의 '가곡의 밤' 순서에 이어 김광수 회원이 여흥 순서 사회를 맡아 즐겁고 흐뭇한 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3월 26일을 잘 기억하시고 다른 행사와 중첩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고, 이번 행사를 원만히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년교례회 일시: 2022년 3월 26일 4시~9시

4-5시: Registration & cocktail

5-6시: 총회, 회계 및 행사 보고

6-7시: Dinner

7-9시: 여흥 순서, 가곡의 밤 및 장기자랑

장소: **Atrium of Tenafly**, 174 Essex Dr, Tenafly, New Jersey

연락: 홍종만, 646-342-2667, hong1945@gmail.com

김정필, 201-965-7759, jaypkim@keiusa.com



골든클럽 회칙개정안 준비

골든클럽 임원회에서는 2017년에 최종 개정된 회칙이 회원자격 / 비대면회의 / 운영위원회 설치등의 보완이 필요하여 개정안을 준비중입니다.

2월 중 안을 확정하여 3월중에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3월 26일 신년교례 / 총회에서 인준을 받을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신년교례회를 맞이하여

■ 임호순 (공대52)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년 Golden Club의 Season-open 행사인 신년교례회를 못 하였는데 어려운 상황 아래서도 올해 2022년 신년교례회를 3월 26일 뉴저지의 Atrium of Tenafly에서 개최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아주 오래된 느낌이지만 지난 1998년 현직에서 retire한 분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주로 골프 모임을 주축으로 회원들의 모임을 한 달에 한번 갖기로 하고 Golden Club을 발족시키면서 회원들과 즐거움을 함께 하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다행히 골든클럽의 큰 울타리 속에서 여러 동문과 회원들과의 교우를 계속 유지하게 된 것은 큰 행운입니다.

골든클럽 모임이 연륜이 쌓이면서 몇 명 되지 않던 회원들이 많은 새로운 회원들의 참여와 클럽 운영진의 끊임없는 노력과 봉사로, 클럽의 발전은 물론 동문회와도 많은 도움을 나누는 모임으로 발전 되었음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2010년 이후부터 골든클럽이 새로운 운영진 아래 골프만의 모임에서 벗어나 행사의 다변화를 이루면서 회원들의 소식을 전하는 골든 클럽 회보 발행을 정례화하며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Golden Club Café를 설치 운용 중에 있으며 명실공히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골든 클럽을 이끌어가는 임원진 여러분의 노력과 정성으로 이루어짐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드립니다.

요사이는 ZOOM으로 컴퓨터교실이 NY, NJ에서 매주 3시간씩 진행되고 있으나 2012년 최수용 원장과 양인회 강사가 컴퓨터교실을 개설한 이래, 다양한 program을 강의해 오던 컴퓨터 연구원 양인회 원장께서 생각지도 못한 병마로 투병 중에 있어서 빠른 회복하기를 여러 회원과 함께 간절히 바랍니다. 3월 26일 신년교례회를 맞이하여 골든클럽 제7대 홍종만 회장과 운영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적인 봉사로 오늘의 골든 클럽이 있음을 다시 한번 경하드리며 지속적인 발전있기 바랍니다. ☀

입회를 환영합니다.

송혜순, 사범대학 60년 입학

(M) 201-906-2279

(E) hsoonsong@gmail.com

Song Haysoon

3 Richard Dr

Waldwick, NJ 07463



허유선, 생활과학대 83년 입학

(M) 973-865-1749

(E) y.pedo@yahoo.com

Heo Yuseon

19 Winfield St

West Orange, NJ 07052



회원동정



2월 16일 여성회원 luncheon-홍예경 이행순 고애자 허유선
고애자 회원은 2월 25일 Mt. Sinai에서 허리 통증수술을 앞두고 있는
데 빠른 회복하셔서 4월부터 시작되는 골프대회에 꼭 건강히 참석하시
기를 기원합니다.

골든클럽에서는 플로리다 동창회가 꿈꾸고 있는 전 미주동창회 초청
겨울골프대회의 씨앗으로 후원금을 기부했다.-홍종만 최희덕 손경택

여주영 作品展

The First Solo Exhibition by JU YOUNG YEO

초대합니다.
언론인 여주영의 또 다른 세계, 유화 작품전.
아름다운 조형 언어의 색채 향기를 마음껏 느끼고
함께 소통하는 만남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Exhibition: March 18- March 28, 2022 12:00PM-5:00PM
Reception: March 20 (Sun), 2022 4:00PM-7:00PM

Flushing Town Hall
137-35 Northern Boulevard Flushing, NY 11354
(Tel. 718-463-0443)

여주영 첫 작품전을 열면서

나는 지난 30년간 언론인으로서 치열한 삶을 살았다. 그때마다 내게 절실한 것은 쉬이었고, 잠시라도 어디론가 달아나고 싶은 탈출구였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그림이다. 힘든 이 민생활에서 나를 버티게 하고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래를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감성의 영역을 잃지 않는 것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나를 지켜주는 것은 그림이었다. 그렇게 한 점 한 점 그린 작품들을 코로나 기간중에도 본격적으로 다듬어 부족하지만 감히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자연의 소리' 나의 행보가 노년을 함께 보내는 여러분들께도 자그마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기간: 3월 18일-28일 Flushing Town Hall
Reception: 3월 20일 4시-7시

For The Next Generation's Mission
뉴브런즈윅 신학교 언더우드 세계선교센터 후원 모금 음악회

2022 The Underwood Orchestra Concert

Mar. 13th 2022, SUNDAY 7PM
Place: Chodae Community Church
100 Rockland Ave., Norwood, NJ • T: 201-767-0400

I. Symphony No.8(4) Op.88
by Antonin Dvorak
II. Nabucco Overture
by Giuseppe Verdi
III. 한국민요연주
(Korea Traditional Folk Medley)
Arr. by Hee Jo Kim

Music Director & Conductor: Dr. Heamee Kang Kim
Soloists: Gwoung Kim (Tenor), Jaeyoung Kim (Soprano)

• Ticket / \$15 & Free Admission (for Students)
• Information / Mr. Jay Kim(201.965.7788), Young Soon Moon(201.843.1641), Ms. Kim(201.362.4433)
• 후원처 / Main Venue: 529 Summit Ave., Fort Lee, NJ • T: 201.947.2772
W. Violin Shop: 39 Highwood Ave., Teaneck, NJ • T: 201.282.4395

*This Concert will be implementing a mandatory vaccination and mask policy for audiences

3월 13일 Underwood Concert

김정필 사무총장이 이사장, 부인 강혜미씨가 지휘하는 Underwood Orchestra 가 2년 여 동안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Concert를 3월 13일(일) 뉴저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골든클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김정필 사무총장 내외와 여러 후원자들이 연례행사로 개최하는 'Underwood 세계 선교 후원을 위한 Underwood Orchestra Concert'에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격려와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연장 입장권은 일괄정리하였고, 입장시 '골든클럽 회원'이라고 말씀하면 골든클럽 회원 '별정석'으로 안내하며, 음악회가 끝나면 간단한 뒤편이 준비될 예정이니 참가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참석 예정 회원께서는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홍종만 646-342-2667, hong1945@gmail.com

The Underwood Orchestra Concert

일시: 3월 13일(일) 저녁 7시

장소: 초대 교회 대강당, 201-767-0400

100 Rockland Ave, Norwood, NJ 07648

2022 플로리다 골프여행

■ 손경택 (농대57)

■ 조동건 (공대69)

2020년 1월 첫번째 골든클럽 Florida golf trip 이후 두번째 trip 을 1/23 - 1/29 일주일간, 이년여 가까운 pandemic lock down 이후, 모처럼 매우 유쾌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날씨의 유쾌함은 초여름이나 늦가을 같은 춥지도 덥지도 않은 상쾌한 기후와 Florida 동창회의 정성어린 환대로 저희 일행을 맞이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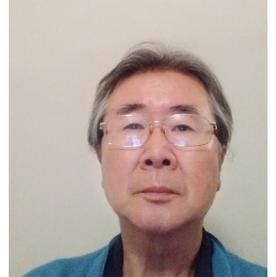
저는 5일간의 연속적인 무리한 golf로 체력이 견디어줄까 하는 염려도 하였으나 동문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정신이 체력을 override 함을 체험하였습니다. 동창회장 최희덕 동문(사68)과 그의 부군 이희문 목사님의 온후하면서도 humorous한 성품은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하였으며 계동휘(치67) 조동건(공69) 동문들의 헌신적 봉사에 감사합니다. 윤기향교수, Dr.김중권, 오인석 동문도 먼길에서 환영함을 잊지 않고 찾아 주셨습니다.

Florida 지역의 특성 상 대도시에서 동문들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넓은지역에 흩어져 살므로 동창회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서 말씀 드린 몇몇 동문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현재와 같이 유지되고 있으나 앞으로 미국의 winter capital 담게 전국 SNU 동문들 초대하는 년례 행사를 꿈꾸고 계셔서 후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5일간 play 한 골프장들은 수많은 지역 골프장 중 엄선 된 각자 특성이 뚜렷하였으나 golf 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green의 속도는 매우 빠른편으로 true green 에 가까워 좋았습니다.

도착하는 날 최회장택에서의 풍성한 Italian 요리 환영만찬과 떠나기 전날 Dr.김중권 동문(의63)의 고별만찬 (북경요리)으로 정성과 비용을 아끼지않은 손님대접의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떠나기 전날 저녁에는 최희덕 회장님 부부가 정원에서 손수재배하신 papaya 를 들고 이별 인사차 저희들의 숙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마침 진행되고 있던 Torrey Pine에서의 Farmers Insurance 결승전을 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끝까지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여행을 예나 다름없이 주관 운영하시느라 애써주신 홍종만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욕에 돌아와 보니 춥고 눈이 쌓이고 왜 저렇게 천국같은 기온에서 못살고 이곳에서 사나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우리 인생 사계가 뚜렷한 이곳에 사는 것도 값어치가 없는것도 아닌듯 싶습니다. 일년에 한두번 방문하고 살면 좋을듯하니 내년에는 더 많은 여러분들이 참석하시기를 권유 합니다.

먼저 Coronavirus Pandemic 의 위험때문에 불안한 상황속에서도 골프를 사랑하고 Florida 의 따뜻한 기후가 그리워서, 2022년 Golden Club Golf Tour 에 참가하신 New York 동문들의 결단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 Golf Tour 에 참가하신 동문들은 모두 Booster Shot 를 맞고 Coronavirus 에 대한 완전한 대책을 준비해서, 이곳에 도착하는 즉시 Home Kit Test 를 통해 Negative 판정도 확인하셨고 그때 그때 적절이 Mask 도 착용하는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여행기간동안 특별한 문제없이 모두 안전하게 New York 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중순 이번 2022년 Golden Club Tour를 위한 홍종만회장의 연락을 받고, 그동안 여러 Mass Comm. 의 COVID-19의 현재 상황과 예상되는 진행상황을 제 스스로 해석해서 홍회장에게 2022년에는 Golf Tour를 해도 괜찮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때에는 많은 동문들이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뒤 예상밖의 Omicron의 출현으로 결국은 12명만이 이번 Tour 에 참가한 것 같습니다. 12월부터 Omicron의 출현으로 미국 전국이 비상사태에 들어갔고 특히 New York 지방이 더욱 심각한 것 같았는데 그 결과 Florida 가 New York의 COVID-19의 피난민들로 말미암아, 집값이며 Rent 비가 엄청나게 뛰었고 골프장도 오래전에 예약을 안하면 Tee Time 을 얻을수 없을 정도로 Florida 가 New York 주민들로 말미암아 분주하게 되었습니다.

2년전 1차 Golden Club Tour 는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New York 서울대동문들과 얼마되지 않는 Florida 동문들 사이에 동문이라는 단단한 끈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고 아름다운 추억을 쌓은 정말로 그림같은 행사였습니다. 거기에서 추웠던 날씨마저 따뜻하게 변하여, 골프치기에 적합했고 푸른 하늘이 동문들의 Golf Tour를 환영했던것 같습니다. 이번 2차 Golf Tour 는 조금 날씨가 추워졌고 한두번 가랑비가 내렸지만 Golf 하는데는 특별한 방해가 되지 않았고 5일간의 Golf Tour 가 큰 사고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2차 Golden Club Golf Tour 를 돌아볼때 Coronavirus Pandemic 이라는 너무나 큰 장애물이 있었고 교통수단도 Flight 가 Cancel 되고 Delay 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행사를 위해 2년 전에도 수고하셨지만 이번에는 Golden Club 회장으로서 모든 절차에서 훌륭하게 Leadership 을 발휘한 홍종만 회장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적은 숫자지만 Florida 서울대동문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최희덕회장님도 New York 동문들과 Florida 동문들의 합동 환

영회를 지난 1차때와 같이 회장실에서 식사와 음료와 주류를 제공 해주고 이번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동문의 한사 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1차, 2차 Golden Club과 Florida 서울대동문이 함 께 Golf Event 가 있을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계동회동문의 수고 와 헌신, 특별히 매 Rounding 마다 아침 일찍 한국 Grocery에서 김 밥을 주문해서 각 cart 마다 전달하는 정성은 어떻게 감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날 항상 Florida 동문회를 위해 여러가지 로 도와주고 있는 김종권 동문님께서 개인 비용으로 고급 중국식당 에서 Farewell Party를 제공해 주고 만나자 마자 헤어지는 동문들 의 아쉬움을 나눌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한 동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런 아름다운 동문들의 모임이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하고 조직화해 서 전미국 서울대동문들의 Golf 모임이 되고, 나아가서 모국의 동 문들도 참가할 수있는 Global 모임이 되었으면하는 제나름대로의 꿈을 그려봅니다. 다시 한번 지역을 초월한 Golf 모임을 통해 서울 대동문들이 동문이라는 관계를 넘어서 마치 가족과 같은 형제자매 의 정을 나누면서, 앞으로 더욱더 번창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 니다. ㄴ



제1차 골든클럽 지식포럼

주제: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가 전망을 중심으로

일시: 2월 17일 (목) 저녁 8시

참가: Zoom Meeting

강사: 윤기향 박사 (법대65 입학, 전 Florida Atlantic University 경제학 교수)

지난 2년간 Covid-19 변이 등으로 야외 및 실내 단체행사에 제약이 많아서 여러 회원들도 불가피하게 Zoom 화상회의에 익숙해질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편집회의와 운영위원회도 매주 금요일 오전에 화상회의를 하면서 매달 Newsletter를 빠짐없이 발간하고, 골든클럽 운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회원들과 소통의 기회를 넓혀 많은 회원의 관심사항과 도움이 될만한 주제를 찾아서 Zoom 화상 Conference를 시작하기로 하고 그 첫번 행사를 2월 17일 목요일 저녁에 가졌습니다.

8시부터 시작된 이날 세미나에는 모두 20명이 참석하여 50분 강의후에 한시간동안 여러 회원들의 뜨거운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이러한 모임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도움이 된다는 좋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번 행사 결과를 점검하여 수정 보완하면서 회원들에게 다 소라도 도움이 되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역사, 문화, 예술, 취미생활 등 다양한 분야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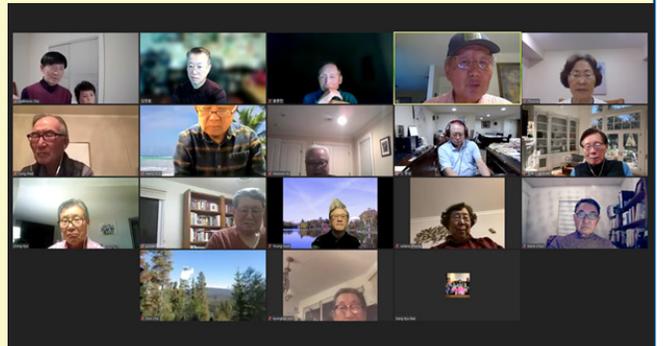
강사소개: 윤기향 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리노이츠 대학 경제학박사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 스쿨 경영학 박사과정
 미네소타대학과 FAU에서 중신교수
 플로리다 어틀랜틱대학고 경제학교수-(2021)

저서:

시가 있는 경제학
 현대거시경제론
 증권외의 논리, 투자의 예술



Covid 팬데믹을 헤치며 지낸 3,300마일의 여정

■ 홍선경(의대58)

지난해 가을, Golden Club에서 Florida Golf trip 2022 를 계획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남편 권정덕(의대 58)은 곧 참가신청을 했다. 2020년 1월, 첫번 Florida golf trip에서 좋은 분들과의 즐거운 추억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2월에 들어 Omicron variant의 출현으로 X-mas 와 망년 회등, 차질이 생겨 어찌할 줄 모르게 되었다. 나는 크리스마스때, 가족단위로 관람할 수 있는 극장구경을 가려고 들뜬 마음에 발을 헛 딪어, 타박상을 입었지만, 복잡하고 위험한(?) 응급실 보다는 집에서 자가 치료하기로 결정하고 하루 하루 경과를 보며 Florida trip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친우, 오유섭(의대 58)동문도 Omicron창궐 때문에 trip을 포기하고, 다른 친구들이 플랜을 바꾸는 사태가 벌어 지자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고집불통인 남편이 그냥 밀고 나가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나는 아픈 무릎때문에 골프를 못 치더라도 여행동반자의 마음으로 참가하기로 했다.

1월 17일 자동차로 집을 떠나 South Hill, VA. 에서 하루보내고, 셋째딸이 사는 아틀란타 조지아에 도착하였다. 원래는 15일 떠날 계획이었는데 동남부 지역 대설 일기예보에 맞추어 이틀을 늦추어 출발 했다. 아틀란타에서 딸가족과 만나고, 마침 추위를 피해 뉴저지에서 내려온 후배 한영수(의대 61) 부부 와 Sugar Hill club에서 golf 를 쳤는데, Mrs. 한은 넘어져서 늑골이 상해 불편한데도 같이 나와서, 절뚝거리는 나의 다리를 대신해 가끔 공을 쪼터다가 편편한 곳에 놓아 주며 친절을 베풀어 고맙고 송구스러웠다.



다음날 Columbus, OH, 이주영(의대58)동문의 Orlando, winter home 에서, 근교에 있던 의대 58동기의 4 커플(이주영, 최준희, 임상진, 권정덕)이 만나 한국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했다. 이주영 동문 집에서 이틀을 묵으며 유명한 Nick Faldo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최근 은퇴한 이주영 부부의 미래와 건강을 빌며 Don Perignon Champagne bottle 을 터뜨렸다. 내 무릎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져, 큰 불편없이 비싼 골프를 쳤는데, 자연치유 과정에 나도 놀랐다.

1월 23일 아침 출발하여 Golden club 의 숙박소 로 가는길에 오빠이며 우리의 동창인 Dr 박 세준(의대58) 의 부고 소식을 듣고, 마음이 허망함과 슬픔으로 가득 찾지만 동기와 동문 들께 비보를 전화로 전하면서, Covid antigen test 로 둘 다 음성인 것을 확인한 후 Greenacre 에 있는 공동숙소에 들어 갔다. 사실, 우리 부부는 새로 사람을 만날 때는 매번 이 테스트를 하여 음성인 것을 확인한 후 만나면서, pandemic을 지내왔다.

숙소는 흥회장 내외 분이 먼저 오셔서 우리가 거처할 방을 지정해 주셨다. 공동 숙소는 함께 지낼 9명에게 적당한 큰 집이었는데, 화장실이 3개뿐인 것이 불편할 수 있었지만 급할 때 먹을 수 있는 비스킷, peanut 그리고 일인용 커피도 넉넉히 준비 됐고 utensil 도 잘 구비된 집이어서 rent를 알선해 주신 조동건 동문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흥yeong회원과 근처 Costco 를 찾아 음식 재료를 구입하면서 코스트코의 편리하고 좋은 음식 거리를 배웠다. 두 식구에 작은 냉장고 하나로 사는 우리는 코스트코 쇼핑을 포기 한지 이삼 년이 되어서 최근의 큰 세상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조동건 동문과 계동휘 동문이, 공항에서 손경택(농대57), 성기로(약대57), 배상규(약대61)동문을 픽업하고 자기 자동차로 오는 조달훈(사대66) 조승자 부부가 도착하며 모든 멤버가 다 모였다. 곧 준비했던 covid antigen kits 로 test하며 양성 반응이 나올까봐 마음조리던 10여분이 지나고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와 안심 하는 중에Florida최희덕 목사님(Florida SNU alumni 지부 회장) 내외가 숙소로 찾아와 2022 Florida golf trip 의 첫장이 열렸다

첫날의 골프는 Atlantic country club에서 있었다. 골프장은 아름답게 잘 정리 되어 있었고, 잔디위에서 네발로 기어가는 작은 악어 같은 Iguana를

처음 보았다. 저녁에는 최희덕 회장 댁에서 Florida 지부 서울대 동문들의 환영 리셉션이 있었다. 넓은 거실에서 푸짐한 음식이 준비된 자리에서 뉴욕과 Florida 동문들을 접대 인사 시키는 최희덕 이희문 두 목사 내외분은 참 든든한 Florida의 보배이다. 전공과 학년은 달라도 SNU 라는 큰 이름 아래 같이 수학 했다는 유대감으로 서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오붓한 모임 이었다.

둘째날, 아침 식사는 최목사님 뒤뜰에 열린 파파야에, 전날 저녁에 싸주신 남은 음식으로 시작, 점심은 멀리있는 감밥집에서 특별한 배달(?) 을 해주신 계동휘 동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지난 2020년 모임에서도 두 부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으며, 우리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만 보답 해 드릴 뿐이었다.

셋째날, 아침 식사는 조동건 동문의 특별한 배려로 Dunes deck on the ocean at Lantana beach 에 갔다. 아름다운 beach 둔덕에 있는 식당에서 맛있는 브런치 메뉴를 즐겼다 식사 끝내고 골프장의 아름다운 수목에만 익숙했던 우리에게 파도가 밀려 오는 백사장과 그 위에 흰 구름이 있는 하늘의 경치, 그리고 야자수와 다른 열대나무가 줄 서있는 데크를 걸으며, 이곳을 안 왔으면 아주 좋은 걸 놓칠 뻔했다고 생각하고 각자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려고 바빴다. 이날 golf

는 Palm Beach National 에서 있었다. par 3 가 많은 이 골프장 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par 3 마다 closest to pin with par하는 사람 에게 상금이 걸려 있었다.

이 골프장에서 나에게 이번이 생겼다. 흥분해서 어떤 hole 이었는지 기억은 안나는데 , 우리 조에서 나 혼자만 green 에 올랐고 그것도 half feet 이내 거리여서 Birdie 를 하였다. 그래서 장려상 이외에는 한번도 타본적이 없는 골프 역사에서 처음으로 \$10 의 상금을 받았다. 나 외에 다른 홀에서 몇 분이 상금을 받았지만 잘 치는 golfer 인 그들에게는 ,나와 같은 감격은 없었을 것이다.

넷째 날 골프는Lake Worth Beach Okechee에서 있었고 , 저녁은 Ichiaml Buffet and Sushi 에서 아주 신선하고 풍부한 생선과 오이 스테어를 모두 즐겼다. 이날 골프에서는 골프가 잘 안 되어서 속상해 하던 남편 권정덕이 마지막 두홀에서 1볼 내기를 하자던 계동문의 제안에 내기를 해서 \$2 를 뺏다고 좋아했다

어느덧 마지막 날, 이날은 Woodmont Country Club, 골프장 가 기 전에 Hard Rock Hotel and Resort에 들렀다. 거대한 electric guitar shape 빌딩에 있는 casino 였다. Lobby 의 장식이 아름답게 물 줄기와 식물로 된 것이 인상적이었다. Woodmont 골프는 많은 여성 member 들이 참석했기에 우리 부부와 조달훈, 천병수(공대 70)가 한조가 되어 잘치는 두분의 골프를 보는 것만도 재미가 있었다. 또 그분들이 잘 못치는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을 들으며 나 도 재미 있게 남자와들과 골프를 즐겼다. 이날 따뜻할 것으로 생각 했던 일기가 추워져서, Mrs. 노재홍(의대 65) 께서 긴 stocking 을 가져 오셔서 모든 여성 golfer 들께 나누어 주어 앞으로도 잘 이용 할 수 있을것 같아 고마웠다 .

Golf를 끝내고 Mainland China Bistro 에서 김중권(의대63)이 베푸는 Farewell party가 있었다. 윤기향(법대65) 전 Florida 지부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 이집의 유명한 Peking duck 을 비롯 여러가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오인석 동문이 가져왔던 와인으로 이 얘기 지 얘기로 마지막 회포를 풀었다. 천병수 동문 부부가 여러 가지 겨울 모자를 가지고 와서 자기 취향대로 골라 가지라고 하였다. 앞으로 이 모자를 쓰고 골프를 치면 즐거웠던 모임이 기억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공동 숙소에 돌아온 동문들은 때 마침 뉴욕 지구를 강타한 Nor'easter 때문에 자동차로 내려온 우리와 조달훈 동문 이외엔 모두 전화기에 매달려서 Airline과 가족들과 연락 하며 마음을 조렸다. 예정했던 토요일에는 아무도 못 떠나고 마침 다음 주는 비어 있는 공동 숙소에 하루 더 있 도록 연장 하였다 우리도 다음 날 아침 airport 차편을 위하여 하루 더 묵게되었다. 조달훈 동문은 토요일 밤 11시(손경택), 일요일 새벽5시(홍종만), 9시(성기호) 에 왕복 하는 수고를 하였고 우리는 월요일에 떠나는 배상규 동문이 묵으실 Holiday Inn에 모셔다 드리고 다음 목적지는 Jacksonville/Amelia Island 로 떠났다 나중에 들은 소식이지만 배상규 동문은 고교 후배인 천병수 동문이 그날 저녁과 다음날 아침 차편을 수고해 주셨다고 한다



하루를 기다리는 사이에 일행은 그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명소를 찾아 보았다. Florida에 계신 분들에게 추천에 따라 팜비치에 있는 Flagler museum 을 방문했다.

Grain Industry 와 salt mining 사업후에 Rockefeller 등과 Standard oil 로 성공한 Henry M Fagler 의 Florida 하우스를그의 niece가 restaurant 을 거쳐 museum 으로 일반에 공개하여, 그 당시의 갑부의 저택과 생활 풍습의 일면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 우리는 생각을 못했지만 조달훈 차 일행은 근처에 있던 Mar a Largo club까지 순회했다고 들었다.☼

전 미주동창회의 플로리다 겨울축제를 꿈꾸며

■ 플로리다 동창회장 최희덕 (사대68)

며칠전 홍종만 회장님과 통화에서 NYGC 와의 행사에 관한 review 도 상세히 활검, "...홍회장님, 이번주 토요일 저녁 이곳 임원 zoom meeting에 들어오실수 있습니까?" 요청을 하니, "...주말에는 주로 산행을 하느라 힘들것 같습니다." 고 하신다. 원래 속도가 빠르신건 알았지만 Florida trip후 좀 쉬실줄 알았는데... 이 추위에도 여전히 산에 가는 산악인에게 그 이유를 묻게 된다면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전설적인 Mallory의 'Because it is there.' 가 생각 난다.

산에 이끌리듯 golf course도 가는 곳마다 다르면서 golfer를 부른다. 좋아하는 곳이 물론 있겠지만 새로운 곳을 찾고 싶기도 하고 나 같이 운동신경이 무딘 사람도 club을 잡으면 매력과 마력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환희의 순간, 실망의 늪, 기대와 절망...때로는 참선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클럽을 잡기도 하고, 도전의 열정이 끓어오르기도 한다. 또한 함께 어울리며 평소에 알던 것과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와중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예화도 많이 들은바 있다. 또 나를 인도하신 선배님의 "난 골프를 모르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고 싶지 않다"는 단언을 부정하고 싶지도 않다. 나 자신 실전에 약하면서도. 여하튼 끝릴만하고, 그림같은 golf course가 가득한 Florida로 오게 된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었는데... 무엇보다 얼마나 좋아하면 이런 행사가 *이런 재난적* 시기에도 재개될수 있는가를 충분히 알게 되었고 동문님들과 가까워졌음이 고마울뿐이다.

며칠전 보내주신 사진과 youtube에 남겨진 영상을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이 새삼 넘치는데 이자리를 빌어 인사와 함께 후기를 쓰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NJ에서 80년대부터 목회 은퇴할 때까지 지냈으니 미국의 고향에서 온 동문님을 맞은듯 첫해부터 친근했다. 갑자기 확산되는 오미크론 여파로 인한 항공스케줄 변경에 긴장하며 안착한 분들을 빌때는 정말 반가웠다. 특별히 두번째 다시 오신 분들은 더구나. 그런데 행사 전날 계획되었다가 미뤄진 환영회에서 내가 감사패를 받게 된것은 기쁘기에 앞서 놀라웠을 뿐이다. 사실 아직 지역에 낯설고 서투른 내가 주관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었다. 당연히 함께 수고해주신 임원(윤기향 초대회장, 조동건 2대 회장, 정치영 3대 회장)과 NYGC, Florida 동창회의 liaison 역할을 해주신 계동휘 동문님, 그리고 행사마다 잔치를 베풀어주시는 김종권 미주동창회 종신이사께 돌아갈 몫임을 깊이 느끼며 송구할 따름이다.

또한 SNU GoldenClub café에 올려진 NYGC 행사 보고서에서 알게 되었듯 빠듯한 예산에서 플로리다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두번째 기금을 주신 성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동창회가 조직된지 얼마 안되었고 Florida 지역이 넓으며 한인 밀집지역의 규모가 작아 활발하지 못한 이곳에 활력을 심어 주신것이라고 본다. 우리 동창회가 Florida 여러 지역에서 SNU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지내시거나 지역특성상 그 저력을 간직한채 은퇴자로, 혹은 타주에서 왕래하시며 겨울 거주지로 삼게된 snowbirds 동문님들과의 교류를 더 찾아야 하는 일에 힘이 될 것이다. 이번에 NY logo 가 새겨진 모자와 합



최희덕회장 이희문 목사 부부

께 멋진 겨울모자도 함께 가져온 천병수 동문부부, 서울대 logo를 새긴 모자와 pin 을 보내 주신 금영천 NY동창회장께도 감사드린다. 그 보답으로 6일간의 점심인 김밥을 준비하고 기념 golf ball 을 제작, 참가자에게 작은 선물로 드렸는데 올해도 점심배달을 도맡아 수고하신 계동휘 회원 내외분께도 감사드린다. (참고로 Florida 동창회는 지역 특성상 겨울 거주동문 참여자도 회원이 될수 있습니다.)

1차 골프여행 후기를 특집으로 펴내신 NYGC 회보를 다시 펴보며 첫 회에 이어 좋은 추억을 공유하게 된 NYGC 여행팀에 새삼 각별한 마음이다. 이번에도 우리는 방문자의 탄성을 들을때마다 자연이 주는 혜택을 새롭게 누리며 멀리서 찾아주신 동문들과 기쁨으로 매일을 지내게 되었으니 손님맞이에 이 지역이 새로와 지는 기분이었다. 2년만에 재개된 이 행사는 아직 무모한 계획으로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참가자 모두 철저한 방역을 우선으로 하며 NYGC Golf 동계 전지 훈련팀 답게 오미크론의 위협을 뛰어넘는 쾌거를 이뤄내었다. 역시 학창시대부터 훈련된 지성이 지혜로 무르익어 가는 선후배님들의 성과인 듯하다.

참가 예정인원도 알아야 하니 우여곡절 고충도 알게된 터라 과연 실제로 도착하셨을때 플로리다 동문의 환영은 의례적인것이 아니었다고 본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우리 삶에 활기를 주고 봄에 새순을 키워내는 것 같은 기쁨을 솟게 한다. 그런데 인생의 활동기에서 안식기로 접어든 듯한 우리에게 도전이 주는 불안이 짙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가까운 목표를 생각하며 기대와 걱정속에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서로를 믿기에 어려운 일을 추진하게 된것이며, 이뤄낸 행사가 자랑스럽고 힘을 모은 동문님들께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더구나 어르신의 역할과 함께 full five days 완주 해내신 손경택, 성기로, 배상규, 권정덕, 홍선경 선배님과 NYGC 여성팀 전원에게는 더욱 건강해지는 축복을 드리고 싶다.

행사 1일, 첫날 행사 이번은 작은 것이었지만 아쉬웠다. 항공편 도착 예정시간이 차질을 빚어 환영회가 이튿날 첫 라운딩 이후로 밀리게 된것이다. Golfer 개인이나 group dynamics 의 기분에 민감



한 이 매력있는 운동이 잘 풀려 나가려면 특히 초행인 참가자에게 현지적응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나는 수년간을 초보자로 머물고 있지만 듣고 보면서 터득한 것이다. 그래도 미동부의 북쪽에서 여기까지 1,300 여 miles 종단 해오신 선 후배님의 5일간의 기대가 최상의 보상이 있기를 바라는 심정이었는데... '오미크론을 뚫고 무사히 도착하신것만도 얼마나 다행인가' 나자신을 추스리며 다시 심기일전할수 있었다.

그러나 수요일 3일째 되는날, 다시 생겨난 변수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기상이 악화된 것이다. 예약된 Palm Beach National course 바로 위 기상도는 오후 100% 비구름이다. 저녁까지 요지부동인 radar를 보고 난감했다. 하루는 총 여행일정 오분의 일, 목표의 20%가 턱없이 날아가게 되었으니, 더구나 숙식해결 위주로 묵게된 곳에서 빗소리나 듣고 계시게 된다.. 갑자기 어느곳을 방문하여 하루를 관광으로 바꿀수 있게 될지... Golf Course 예약과 진행을 맡은, 현지 사정과 기후특성에 밝은 조동건 동문과 연락해보니 끝을 못내게 되더라도 그냥 시작할 생각이라고... 갑자기 작년 여름 Florida hurricane Ida예보에 초집중했던 생각이 떠올랐다. 이 지역을 강타할 진로가 바뀌면서 다행히 대서양을 따라 북쪽으로 떠나버려 안도했던 일 말이다. 그때 고생하신 NY, NJ 지역 동문계는 죄송하지만 결국 세상은 나 있는곳 중심이지 않은가...? 예보된 비였으니 가까운 대서양 바다쪽으로 좀 밀려간다고 별 큰 손해볼 자 없잖은가...? 혹시나 그런일이 오늘도 생길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진 것이다. 시작시간이 다가오는데 빗방울이 보인다. 내색은 안하셨어도 그날 오전 흥종만회장님을 비롯 참석자 많은 분들이 기운 빠지셨을 것이다. 이 지역 명소인 DUNE DECK CAFÉ 에서 파도치는 바다를 창넘어 바라보며 brunch로 시간보내실때 '오늘은 이것으로 that's it?' 하셨을까? 아니면 오늘은 어떤 swing이 나올까, 이번 일정중 한창인 3일째 인데 하시며 편안히 즐기셨을까?... 그러나 먹구름이 갈라지면서 Palm Beach 지역을 벗어나 기대할수 없었던 Full Rounding 하게되었으니 천만 다행이었다.

행사 5일째, 어느새 마지막 날이 되어 이번 코스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Woodmont Country Club 에서는 Florida 여성 golfers 까지 합세, 2년전 참석자 중 못오신 여성 golfer들의 자리를 메꾸게 되어 정말 기뻐다. 하지만 성대한 저녁 만찬을 준비하신 김종권 선배님의 평생 Golf partner, Mrs. Kim의 불참은 유감이 아닐수 없었다. 참가자 6 그룹이 다 채워지고 나니 한분 자리는 사양하게 된것이다.

예약시간이 늦어 출발이 늦은데다 모두 끝나는 시간이 환송만찬에 늦어질까봐 여성팀 4 카트가 선두에서 부지런히 속도를 내었다. 한참 하다 보니 뒤에 따라 와야할 남성팀 카트가 안보이지 않는가. 우리 팀중 간신히 따라가던 정도인 나는 속도까지 내느라 여유있게 실력 발휘도 못하고 있는데 웬일들 이실까... 드디어 우리보다 앞서 가던 여성팀 1조에서 마지막 hole을 마치고 수색에 나섰다. 아니나 다를까, 아쉬운 마지막날, 게임에 열중하여 시간가는줄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환송만찬에서의 farewell 덕담과 마음이 열린 분위기에 다 잊혀졌을지도. 승자도 패자도 없는 재미있는 경기가 되었을것 같다.

일정후에는 때마침 동북부를 강타하게 된 Monster Nor'easter 로 귀가길이 우려되어 마음 조리게 되었다. 그러나 항공편 schedule 변경으로 하루 또는 이틀 연장이 된 분들과 차편으로 오신 분들이 함께 숙박연장 하시며 West Palm Beach 소재 Flagler Museum 도 방문하시는 등 우의가 두터워지는 기회가 되었고 배상규 선배님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동창회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바로잡는 일도 생기고 다같이 기뻐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고 10년 후배 천병수 동문이 화요일 새벽 공항 차편도 도맡았으니,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더해지며 전화위복이 된것 같다. 작은일, 큰일, 고마움으로 가득했던 일주일, NY과 Florida의 선 후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

Happy times come and go, but the memories stay forever. -

unknown

새해의 목표 - 집안정리

■ 홍종만 (공대64)

어린 시절, 책가방이 귀하여 보자기에 싸서 둘러매고 다니며 아끼고 절약하던 몸이 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에 살면서도 온 집안 가득히 잡동사니가 쌓이고 있다. 집집마다 Closet은 사서 걸어 놓기만 한 옷부터 있는 줄도 모르는 옷까지 가득하니 어떻게 정리하고 버릴 것인가 고민하며 현대인은 물질 과잉으로 피로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물건 과잉의 시대에 살면서 잠깐의 행복을 위해 사들인 물건들을 집에 쌓아 두면서 인간문명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수명이 다하기도 전에 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는 물건을 사며 행복을 느끼는 시대에 살면서 주말이면 Shopping Mall로 향하곤 했다. 갖고 싶었던 것을 사면 행복했고 소비=행복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명품, 차, 좋은 집 같은 것을 소유하기 원했고 또 우리가 무엇을 사고 소유하는지가 사회적 지위와 연계되며 우리의 소비수준이 행복수준인 것 처럼 착각하기도 하였다. 광고 전문가는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 소비와 행복을 연결시키며 코카콜라를 사서 마시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콜라를 마시며 웃음 짓는 광고 모델들로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다.

우리는 물질과잉에 피로하고, 과도하게 욕심부려 쌓아 놓은 것들을 정리하고 싶어하지만 그렇다고 꼭 실용적으로 필요한 것만 남기고 싶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여전히 우리가 좋아하는 물건과 관계를 통하여 행복을 실현한다고 주장하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칼럼을 읽고, Netflix 공식 site에 들어가 Marie Kondo의 정리요령 'Tidying Up' series를 접하면서 나도 시간을 내어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용기를 갖게되었다.

그녀의 정리방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의류부터 시작해 책, 서류, 소품, 추억의 물건 순서로 한 종류 씩 한 곳에 다 모아 놓는다. 여기저기 산재해 있을 때와 달리 한 곳에 모으면 대단히 많은 것을 실감하게 되고 물건을 하나씩 만져서 설레 임이 없으면 미련없이 버리라는 것으로 매몰찬 결단을 하라는 것이다. 모든 옷을 옷장에서 끄집어내어 하나의 더미로 쌓아 놓으면서 산처럼 쌓인 옷들을 보며 그녀에게 집 정리 컨설팅을 의뢰한 집 주인들은 '옷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줄은 몰랐다'고 깜짝 놀란다.

Marie Kondo의 컨설팅 첫 번 과정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물질과잉의 피로'를 시각적으로 실감하게 하고, 다음 차례로 쌓인 옷을 하나 하나 손으로 안아 **설레임(Sparking Joy)**이 느껴지면 보관하고 별 감흥이 없으면 '이제까지 고마웠어' 라며 미련없이 버려라. 이게 그녀의 정리방법 핵심인 '물건과 나의 관계, 즉 **'Sparking Joy, 설레임**이 느껴지는지' 취사선택 기준이다.

이후에도 Marie Kondo가 물건을 버릴지 말지 구분하는 방법을 묘사하는 방식은 흡사 헤어질지 말지 고민하는 연애상담처럼 '물건과 우리의 연결성이 더 이상 소유가 아니라 관계적' 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물건과 미래에도 함께하고 싶은 지, 그 물건과 미래가 그려지는지' 상상해 보라고 한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더 이상 물건이 필요해서 사기보다는 '좋아서 혹은 설레 여서 사며' 물건을 소유하고 행복을 느끼기 보다는 물건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Life Style을 실현하는 것이 행복이고, 현 세대의 진정한 워너비(Wannabe)는 명품을 과시하는 셀럽(Celebrity) 보다는 자신들만의 개성적인 패션과 문화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Netflix에 들어가 **'Tidying Up'**을 click하면 옷가지 뿐 아니라 부엌 정리, 차고정리, 수집품정리, 애들방 정리, 회사 자료정리 등 우리 일상의 모든 분야에 걸쳐 기쁜 마음으로 정리정돈의 도움을 받는 실례를 볼 수 있으며, 그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새로운 직업분야로 발전해 가는 현실을 보면서, 얼마전 일본 여류작가 히라다 히카의 소설 '낮술'에 등장하는 야간에 필요한 도움을 알선해 주는 소개소와 도우미의 낮 시간 보내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갑작스런 야간 간병인의 필요, 갑작스런 추가업무로 야간에 노인네를 혼자있게 할 수 없는 경우 등 사회구조가 변해가면서 필요한 일자리가 생겼듯, 금년에는 나도 집안 정리 컨설팅을 받던지 아니면 스스로 큰 마음 먹고 작은 정리부터 시작하여 보람을 느끼는 한해를 만들어 나가야 할지 궁리 중에 있습니다. ✿



SPORTS -- A Mirror to America in the 20th Century

■ 정도현(공대 57)

This time of the year while we are still in the Pandemic, as we are, as usual, inundated with wall-to-wall sporting events on TV. NFL Superbowl, Beijing Winter Olympics, NCAA March Madness, MLB Spring Training, NBA & NHL Playoffs, EPL, UEFA, Masters, what have you. Give me a break!! When you think of it, SPORTS has a profound impact on American life.

Upon the turn of 20th Century, America transformed from an agrarian to an Industrial society, urbanized & made stunning advances in technology with a diverse ethnicity in democracy and became a wealthy powerful country. The new-found wealth was spread not only to the wealthy but also to the ordinary folks. They began to enjoy the disposable income & leisure time and thus the rise of Entertainment Society. The effect on the world of sports became the most dramatic by product of the beneficiary.

No one would illustrate the unique American social fluidity better than a best-known athletic icon. Babe Ruth single handily created the golden age of American spots between the two World Wars. Though he had a difficult life in growing up, he was a big, joyous, sometimes out of control but unspoiled character who brought drama to everything he did. His rise coincided with the change of modern media delivery system -- from Newspaper to Radio broadcasting.

WWII made America a true superpower with democracy overcoming the dictatorship, however America was faced with a paradoxical contradiction in itself. Slavery is gone but it was replaced by systematic racial segregation. Most of the professional sports were lily white under a guise of false notion that says, "Blacks can Run but lacks Mental Fortitude." Soon, in 1947, a smart baseball executive, Branch Ricky brought up Jackie Robinson, a black, to MLB. The rest is history. It became a pivotal moment of Civil Rights movement. It all played out on the screen of a new media technology called TV.

When the turbulent decade of 1960 began, a young black man named Cassius Clay(aka Muhammad Ali) came out from nowhere became a Heavy Weight Boxing Champion

of the world. He was extremely talented, smart, and charming but angry at the racial injustices and defiant to the authority. Although he was marginally educated, he knew instinctively the Vietnam war which was conducted by all those Harvard men was wrong and refused to serve in the Army. He paid a heavy price for the crime he did not commit. But at the end he regained his crown and became a hero to young generation, black & white. By the turn of the Century, he was the most beloved and admired athlete around world. Again, TV played pivotal role. Without the camera as eyewitness, Ali's life and Vietnam War might have had a different history.

Decade after the WWII, most of the American families had TV sets. This technological breakthrough changed the very nature of Sports in the 2nd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Camera caught the actions which radio always missed was the speed of actions. The Action Sports such as Football and Basketball now took center stage. Football, fast, brutal, at the same time balletic was made for camera, instantly broadcasted in America and the entire world as opposed to casual, leisurely game of Baseball which is made for the Radio.

Sports teams as well as athletes benefited with huge revenue. Now Sports became a big business with a global brand. Here comes another Golden age of the Sports. There were two supremely talented black athletes emerging on the horizon -- Michael Jordan & Tiger Woods, sharp contrast to Ali, born in time which made them beneficiary of the modern civil rights movement. They went to integrated public school and went on to college. Their persona didn't resonate with the anger of the previous generation. As the 20th Century came to close, Americans, white or black, was delighted to have these two incredibly gifted athletes who seem to be smiling back to them.

It had been, all in all, an astonishing century for America and their Sports. As a Sports Junkie. I had a great ride. 🌟



회원 명단 (111명 / 2022-2-20)

강교숙	김병순	박희병	오인석	이행순	최준희
강에드	김상만	배상규	우규환	이홍민	최진영
강영선	김승호	성기로	유무영	임도혁	최철용
계동휘	김영덕	손갑수	윤선구	임호순	최학주
고애자	김영만	손경택	윤종숙	정노현	추재욱
곽상준	김우영	손대홍/	윤현남	정수일	한영수
곽선섭	김익성	남종현	이상무	조달훈/	한웅오
곽승용	김인형	손옥화	이준	조승자	한태진/
구달희	김정필	송근숙	이대연	정해민	안용희
권정덕/	김정수	송현자	이대영	조상근	안용웅
홍선경	김태일	송학린	이범선	주재양	허유선
권영대	김한중	송혜순	이수호	진봉일	홍사만
권태전	김현중	신진식	이용대	천병수/	홍정표
금영천	노용면	신응남	이전구	천종화	홍지복
김광수	민준기	양인회	이종대	최구진	홍종만/
김광현	박기환	오순문	이중석	최병우	홍예
김동건	박준구/	오용호	이준행	최수용	
김문경	최숙희	오유섭	이준희	최순채	
김문연					

2022년 연회비 납부 명단 (39명 / \$3900/ 2022-2-20)

강교숙	김창수	송학린	오용호	한태진	최준희
강에드	민준기	신진식	윤선구	안용희	
강영선	박희병	오유섭	윤현남	홍선경	
권정덕	성기로	이강홍	이대영	홍종만	
계동휘	손경택	이용대	이종대	홍예경	
김동건	송근숙	이전구	진봉일	홍정표	
김상만	송용길	이행순	정해민	홍지복	
김종율	송현자	임호순	한웅오	최순채	

2022년 후원금 기부 명단 (18명 / \$8000 /2022-2-20)

강에드 300	성기로 300	오유섭 100	임호순 300
권정덕 200	손경택 1000	이강홍 200	정해민 500
김승호 1000	신진식 300	이전구 1000	한태진 500
김종율 200	홍종만 500	이종대 200	
송학린 1000	오용호 300	이행순 200	

2022년 입회비 납부 명단 (2명 / \$400 /2022-2-20)

송혜순	허유선
-----	-----

발전기금 기부명단 (1명 / \$20,000 /2022-2-20)

이준행 20,000

골든클럽 2022년 행사 일람 (2022-2-20)

1월	23~29일	플로리다 골프트립 (12명 참가)
3월	3월 26일(토)	신년교례회 - Atrium of Tenafly
4월	4월 14일(수)	Hiking - Greenwood Lake
	4월 21일(목)	Opening Golf Outing
5월	5월 18일(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5월 26일(목)	여성회원 피크닉 - 손대홍 회원 뒷뜰
6월	6월 9일(목)	Golf Outing
	6월 23일(목)	Picnic - Rockland Lake State Park
7월	7월 14일(목)	Golf Outing
	7월 16일(토)	컴퓨터 연구원 피크닉
7월	7월 28일(목)	Barnes Museum Tour, Philadelphia
	8월	8월 11일(목)
9월	9월 15일(목)	Golf Outing
	9월 18-30일	한국방문여행
	9월 24일(토)	뉴욕지역동창회 Picnic
10월	10월 12일(수)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10월 20(목)	Harriman State Park 산행
11월	11월 3일(목)	Golf Outing
12월	12월3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1월	22-28일	골프트립, West Palm Beach, Florida
3월	3월25일(토)	신년교례회, Atrium of Tenafly

3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김영덕 (공대53)
- 이대영 (문리64)
- 이준행 (공대48)
- 임도혁 (공대59)
- 조상근 (법대69)
- 추재욱 (의대57)
- 한태진 (의대58)
- 최진영 (문리55)
- 최준희 (의대58)
- 홍종만 (공대51)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뉴욕: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뉴저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 - 오후 1시
 Zoom video 강의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 양인회 (917-494-0223)
 홍종만 (646-342-2667)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T) 201-965-7759 (E) jaypkim@keiusa.com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주소 (Home): _____

입회비 \$200
 연회비 \$100
 후원금 (\$) _____